

# 5월 그날의 현장서... '오월의 노래' 막 올랐다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광장에서 막 올린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첫 날 행사에서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국 50여팀 참여

31일까지 매일 저녁

5·18광장서 노래 선사

1일 첫 날 공연 주인공은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

'시합류'·김현성·'우리나라' 디우타고에 합창단 등 출연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1980년 5월 '그날'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노랫소리가 귀를 사로잡는다. '그날이 오면', '사계' 등을 만든 문승현씨가 1981년 작곡한 '오월의 노래'가 2017년 5월 1일 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옆 광장에 울려 퍼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상설 음악회 '오월의 노래' 공연이 열렸다.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전국에서 활동하는 50여개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무대가 마련된다. 14일 열리는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박스참조)을 비롯해 5·18 전야제(17일), 광주 시민의 날 행사(20일) 때는 공연이 열리지 않는다.

첫 날 공연의 주인공은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 강숙향, 강평근, 강형원, 꽃님이, 이근철, 정영훈으로 구성된 '오월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광주에서 개별 활동을 펼치는 가수들이 만든 프로젝트

트 팀이다. 이들은 김광석의 '일어나', 김민기 곡 '내 나라 내 겨레', 민중가요 '이산하에' 등 다양한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호흡했다.

'오월의 노래' 프로젝트는 1980년 이후 전국의 음악인들이 광주에 모여 삶의 가치를 노래하던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다. 금남로 가톨릭 센터 앞 등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음악인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많은 시민들과 광주를 찾아온 전국의 순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백기를 거쳐 2015년 5월, 다시 시작된 '오월의 노래'에는 민중가수 뿐 만 아니라 인디밴드, 아카펠라, 뮤지컬, 국악,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함께 모여 '삶'을 노래한다. 올해는 따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팀들을 섭외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시합류'(시민과 함께 하는 뮤지컬 배우들)가 이정열(18일)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세월호 시민상주 노래

모임 '세세세' 외에도 김강주, 조성일, 김산, 강현수, 지민주 등 새로운 음악인들이 합류했다.

또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을 만든 김현성, '다시 광화문에서' 등을 선사할 '우리나라'도 무대에 오른다.

일본의 우타고에 합창단은 올해도 광주를 찾으며 가수 박문욱, 김원중, 박종화, 인디언 수니, 프롤로그, 프로젝트 앙상블 '런', (사)내벗소리 민중예술단, 바다 프로젝트, 우물 안 개구리, 푸른솔 시민합창단, 정용주, 박양희, 광산구립합창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참여,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간다. 그밖에 광주시가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나잇어클라'의 이성우도 참여한다.

오월의 노래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maymusicbusking)를 통해 공연 팀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오월창작가요제 10팀 참여 14일 본선 322개팀 접수...이한철 등 축하 공연

제7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5월 14일 19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중광장에서 본선 무대를 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오월창작가요제 추진위원회와 (사)오월음악이 주관하는 이번 가요제에는 10개 팀이 참여한다. 경연에는 모두 322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음원 및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예선을 진행, 시민평가단 17명이 선

정한 2팀과 전문 심사위원 4인이 선정한 8팀 등 10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확정했다.

이번 경연에서는 광주의 오월 뿐 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래, 스마트 폰만 바라보는 세상을 꼬집는 노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곡 등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노래하는 곡들이 많았다. 선정된 곡은 아이를 잃은 세상 모든 부



'외로운 인생', 밴드 J-sy의 '그대로 멈춰라', 알바인생의 '청춘천가', 폰부스의 '만

모들의 찢긴 마음을 표현한 보영의 '피에타', 모리슨 호텔 '노동자의 노래', 효의 '나쁜 여자', 피아커의 '하루', 비버타운의 '낙화', 김지운 밴드의 '외로운 인생', 밴드 J-sy의 '그대로 멈춰라', 알바인생의 '청춘천가', 폰부스의 '만

조', 투스토리의 '개미의 노래' 등이다.

가수 이안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선 경연에는 전년도 대상 팀 협회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평화의나무합창단, 나빌레라예술단, 타악그룹 일췌의 주제공연과 슈퍼스타 이한철(사진), 스카웨이커즈 등의 축하 공연도 열린다. 대상 1000만원 등 총 26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문의 062-682-0518. /김미은기자 mekim@

## '작은 여행의 꿈'...김영화 작가 초대전



'외가집에서'

여수 해안통겔러리 20일까지

김영화 작가가 여수 해안통겔러리에서 '작은 여행의 꿈'을 주제로 20일까지 초대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행을 다니며 본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담은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작가의 여정이 그림일기처럼 담겨 있다. 좁다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집 마당에서 먹을거리를 나누는 사람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다.

작품 '여행이야기'는 수 많은 흰 나비가 그려진 청록색 배경을 바탕으로 산, 바다, 관광지와 그들은 이어주는 도로 모습이 펼쳐진다. 바닷가 장터에서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있고, 식당, 이발소, 치과, 당구장 등 상점이 그려져 있다. 또한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각 집들의 단면을 작품에 담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또 '가을 고향 가는 길', '세상살이', '자! 떠나자' 등은 누구나 경험해봤을 여행이야기를 통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지금까지 개인·초대전 30여회를 열었다. 올해 KPAA 골든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사무국장, 목공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3-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통문화관 6일 '명인명창이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귀로만 들던 판소리 춘향전을 박춘맹 명인의 익살스런 연기로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통문화관이 6일 오후 3시 토요상설 공연으로 '명인명창이 함께하는 국악의 한마당' 무대를 선사한다. <사진> 이번 공연은 (사)한민족전통예술연구위원회(대표 이경화)를 초청해 가야금 병창, 화선무, 나무꾼막(창극), 아쟁산조, 반고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등을 선보인다.

첫 무대로 방아를 찧으면서 메기고 받 는 형식의 민요 '방아타령'을 가야금병

창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허튼가락에 맞춰 추는 흥겨운 춤 '화선무', 판소리 춘향전의 한 대목인 창극 '나무꾼막'을 박춘맹, 이경화 명인이 공연한다.

또 애절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아쟁산조'와 정중동 매력을 보여주는 '반고춤' 등을 즐길 수 있다. 관객들과 함께하는 '남도민요'를 끝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경화, 박춘맹, 김성애, 김승호, 박정진, 신지수, 박형주, 심세희씨가 출연한다. 13일에는 국악 '풍물천지' 초청 '풍물놀이 한마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 062-232-1595. /김용희기자 kimyh@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